

## 고려청자를 안다는 것과 느낀다는 것

이애령 | 303호 청자실 | 18:00~18:30

장인이 흙으로 정성을 다해 빚은 도자기는 뜨거운 용광로 같은 불 속에서 그 빛깔과 형태가 완성됩니다. 도자기 역사에서 자기의 제작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유약을 입혀 높은 온도에서 환원번조 하는 자기는 제작 기술의 뒷받침과 높은 온도를 견뎌낼 수 있는 가마 설비의 완비 등 문화적 성숙의 토대 위에 완성되는 종합적인 결정체입니다. 이러한 자기 문화를 일찍부터 발전시킨 나라에는 한국과 중국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18세기부터 자기 문화가 시작되었다면, 한국과 중국은 그 역사가 장구하고 제작 기술 또한 매우 앞서 있었습니다. 한국 도자기는 중국 도자기처럼 적극적인 무역 도자의 역사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중국 도자기와 다른 독특한 예술로 오늘날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예술품인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은 ‘비색翡色청자’와 ‘상감象嵌청자’로 대변됩니다. 12세기 전반 절정기를 이룬 고려 청자는 중국 도자기의 영향을 유연하게 적용시키면서, 고려 청자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양각, 음각, 투각, 상형, 상감, 철화 등 다양한 문양 기법을 사용하여 아름답고 세련되게 장식하였습니다.

가장 괄목할 성과는 비취색 광택을 띠는 비색翡色 청자 유약의 완성입니다. ‘비색翡色’은 고려청자의 신비로운 영롱한 비취색을 일컫는 말입니다. 청자의 푸른 비취색은 유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소량의 산화제이철이 산화제일철(FeO)로 환원되면서 나타나게 되며, 12세기 전반기에 가장 세련된 색깔을 보였습니다. 고려 인종 원년(1123) 고려에 온 중국 송나라 사신 서긍徐兢은 『선화봉사고려도경』에 ‘도기로서 색이 푸른 것을 고려 사람은 비색翡色이라고 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고려 청자의 새로운 경지를 연 ‘상감청자’는 12세기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감은 표면에 문양을 새기고 그 부분에 이물질들을 박아넣는 기법입니다. 이미 나전칠기와 금은 입사공예품 등에 널리 활용되던 장식 기법을 도자기에 도입하여 독자적인 양식으로 개발한 것은 고려 장인의 창의적인 성과입니다. 12세기 후반 고려 상감 청자의 기술 역시 절정에 다다랐고, 상감청자만의 독창적인 세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청자의 유약은 점점 맑고 투명해져 상감 문양을

생생하게 드러내며, 상감 청자를 대표하는 문양인 구름과 학을 비롯해서 소나무와 갈대, 수양버들 등이 부드럽고 우아한 선의 흐름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알긴 알아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고, 잘 몰라도 자신만의 관점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예술품입니다. 그렇지만, 알면 알수록 예술품을 감상하는 즐거움은 커져 갑니다. 사진에 보이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두 매병은 그 아름다움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1  
청자 음각 연꽃냉쿨무늬 매병.



그림 2  
청자상감 매화 대나무 학무늬 매병

## <황금인간의 땅, 카자흐스탄> 특별전

강건우 | 121호 특별전시실 | 18:00~18:30

초원의 고대인들은 자연의 힘을 숭배하고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해, 달, 불, 돌 등을 특별한 힘을 지닌 존재라고 여겼고, 죽은 자를 위해 성대한 장례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관념은 카자흐스탄의 남부 세미레치예(Semirechye, Jetysu)에서 출토된 향로, 술, 받침 등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향로는 불과 태양 빛, 계절의 순환과 관련된 의례용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향로에 보이는 말을 탄 사람은 태양신 ‘미트라’입니다. 유목민에게 미트라는 목축의 신이자 세계 질서의 지배자이며 그가 물고 있는 소는 빛의 상징입니다. 향로의 불은 초원의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희망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술은 제물로 바칠 고기를 삶는 데 사용하였는데, 술의 수량과 크기는 당시 지배층의 재력을 보여 주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술의 다리 부분에 다양한 형태의 동물이 표현되었고 이와 같은 동물 양식은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동유럽 남부에서도 확인됩니다. 술에서 끓인 의식용 제물은 제사용 받침 위에 올렸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제물을 올려놓는 받침은 그들이 머무르는 초원을 상징했습니다. 받침의 다리 역시 술과 같이 동물 장식으로 표현된 예가 많은데, 이는 동물 장식이 주술적인 힘과 관련이 있다는 믿음에서 기인합니다. 또한 고대인들은 무덤이나 제사터 근처에 ‘발발(Balbal)’ 이라고 하는 조각상을 세웠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조각상은 죽은 자의 영혼을 담은 그릇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림 1. 향로, 기원전 2세기~기원전 1세기, 높이 31cm, 카자흐스탄 남부 알마티, 카자흐스탄국립박물관



그림 2. 동물 머리 장식 받침, 기원전 6세기~기원전 5세기, 높이 15.5cm, 카자흐스탄 서부 베소바, 카자흐스탄국립박물관

## 경주 계림로 보검의 과학적 분석

유혜선 | 121호 특별전시실 | 19:00~19:30

경주 계림로 14호분은 1973년 미추왕릉 지구 정화사업을 하던 중 발굴된 무덤으로, 규모에 비하여 수준 높은 부장품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장식보검(6세기, 보물 제635호)은 신라의 문화재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형태나 제작기법 때문에 발굴 당시부터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검은 누금세공기법과 보석을 박아 넣은 감장기법으로 만들었는데, 보검의 형태나 제작기법 등으로 보아 6세기대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검의 장식은 붉은 홍마노(紅瑪瑙)와 회청색 보석으로 추정해 왔으나 이는 육안에 의한 판단이었습니다. 이 장식의 재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성분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보검을 장식한 감장嵌裝 물질 및 누금鑲金 재료를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보검 장식의 분석에 사용한 장비는 엑스선 형광 분석기(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에너지 분산형 분광기 부착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with 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SEM/EDS), X-선 회절분석기(X-ray diffractometer, XRD), 자외-가시광 분광분석기(Ultraviolet-visible spectrophotometer, UV-VIS)입니다.

위와 같은 분석 방법으로 계림로 보검에 감장된 물질의 종류가 유리화 석류석(石榴石, garnet)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1. 계림로 보검, 경주 계림로 14호 무덤, 6세기, 전체 길이 36.8cm, 최대 폭 9.05cm, 보물 제635호,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 특별전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 (11)

채해정 | 기획전시실 | 19:00~19:30

고려시대 무덤에서는 금, 은제금도금, 금동으로 된 작은 장신구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주로 한 쌍으로 된 것이 많으며 일부는 한 개만 전하기도 합니다. 충청북도 청주 명암동 고분, 경기도 안성 매산리 고분 등에서는 이런 장신구가 출토되기도 하였습니다. 고분 내 출토품의 경우 위치가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 쌍의 장신구는 가슴 부분에서 발견되어 옷의 깃 부분을 장식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신구의 형태는 이런 추정을 뒷받침합니다. 즉 투조透彫로 된 것도 많고, 투조가 아닌 경우라도 일부 바탕을 뚫었거나 고리를 붙인 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신구 뒷면에 섬유질이 붙어 있는 사례가 있어 실로 꿰매어 옷 등에 부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금으로 된 장신구 11벌을 소개했습니다. 크기는 높이 2센티미터 내외로 매우 작은 편이지만, 사실적으로 묘사된 섬세한 무늬를 보면 고려의 공예 제작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틀을 이용해 주조로 만든 후 다시 무늬를 다듬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타원형 안에 원앙과 연꽃, 거북이와 연꽃 등을 장식한 사례를 보면, 일정한 형식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형식을 변형하여 거북이와 뱀이 같이 있는 현무를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밖에 마름모 형태의 능화문, 둥근 고리 모양, 원형과 사각형 등 다양한 모양 안에 무늬를 장식한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구불거리는 용의 몸을 원형 안에 배치한 다음 불필요한 배경을 거의 투조로 처리한 장신구를 보면, 고려의 뛰어난 기술과 디자인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림1. 금제 장신구  
고려, 높이 1.7cm, 덕수2341



그림2. 금제 장신구  
고려, 높이 2.7cm, 덕수5527